

민천주보

제2734호

2022년 8월 7일 | 연중 제19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보물 찾기 <중3동 성당>

이선호 스테파노, <임마누엘>, 2011, 성당 외벽 성화

입당송 | 시편 74(73), 20. 19. 22. 23 참조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제1독서 | 지혜 18, 6-9

화답송 | 시편 33(32), 1과 12. 18-19. 20과 22(© 12L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 히브 11, 1-2. 8-19

복음 환호송 | 마태 24, 42. 44 참조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음 | 루카 12, 32-48 (또는 12, 35-40)

영성체송 | 시편 147(146-147), 12. 14 참조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금주의
**녹색
순교**

샤워 시간 줄이기

깨어 있는 삶

찬미 예수님.

여러분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었나요? 아마도 사랑을 해 보신 분들은 상대방을 한 번쯤은 애타게 기다리고 초조해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옷은 잘 입고 왔나, 얼굴은 괜찮나, 머리 모양은 괜찮나 등을 살펴보며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이 생겼습니다. 오늘 복음 환호송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마태 24.42.44 참조)

예수님과 우리의 중요한 약속이 생긴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찾아올 그 날과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째 비유는 혼인 잔치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태도에 대해, 둘째 비유는 집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집주인의 태도에 대해, 셋째 비유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을 다스리도록 책임 맡은 관리인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들 모두 불확실하고 막연한 미래의 어떤 기다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주님은 알려 주십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루카 12.35)

허리에 띠를 매는 것은 찬미 받아 마땅한 모든 일에 힘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육체노동은 하거나 힘든 일을 하는 이들은 허리에 띠를 맵니다. 등불은 마음과 지성이 기운차게 깨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 온갖 사악함에 무릎 꿇게 하는 부주의에 빠져들려는 마음을 잘라 버릴 때, 우리는 그의 마음이 깨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군대에서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5분 안에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무장하고 있다가 5분 안에 출동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출동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반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루카 12.48)

주님을 알게 될수록, 신앙이 깊어 갈수록, 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항상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유두환 프란치스코 신부
김포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기도가 되는 활동

교회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아내에게 “목주만 굴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성당에 가서 걸레질이라도 한 번 해야 해.”라고 훈시를 하곤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 놓여 있는 수많은 감투를 쓰고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활동을 많이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왠지 기쁘지 않았고, 함께 일했던 형제님을 세세하게 판단하면서 화가 났었기 때문입니다.

‘봉사’라는 단어의 뜻이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덮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였으니 ‘봉사’가 아니라 ‘투자’를 했던 것이로구나 싶었습니다.

본당에서 반주자로 봉사하는 한 자매님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어찌지? 반주자의 박자와 신자들의 박자가 맞지 않네.” 하는 생각들로 긴장돼서 오르간 앞에 앉을 때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자매님은 하느님의 일기에 하느님 일을 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일을 합니까?”

자매님은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제가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자매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자매님은 “하느님께서서는 전능하시니까 저의 도움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지만...” 하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또다시 제가 다그쳤습니다. “자매님 마음속에 내가 잘하고 싶고, 질책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자매님께서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주 봉사’는 봉사가 아니고, 하느님의 일하기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느님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을 졸이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반주자는 반주하고, 신자들은 목청을 가다듬어 성가를 부르고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드리는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활동하는가? ‘하느님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하기에’ 활동하는 것이어야 했는데, 제가 초보 신자이었을 때 하느님의 일을 많이 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느님과 거래를 했었습니다만, 다행히 제 신앙은 성장을 거듭해가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깨닫게 되면서 ‘간절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서에 적혀 있는 ‘기적’이 일어난 때를 보면,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청원자들이 갖고 있던 공통점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반주할 때 실수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생긴 이유가 성가를 부르는 신자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례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인 것과 반주하다가 일으킨 실수 때문에 질책받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은 같은 간절함이라 해도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목주를 굴리는 것과 성당 의자를 닦기 위해 걸레질을 하는 것, 두 가지 행위를 우리는 모두 다 기도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주 다르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하느님의 일이라서 하는 일인지, 제 모든 행위의 지향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싶었습니다.

생태적 발걸음

“줄리아 자매님, 본당에 녹색 분과를 신설하는데 초대 분과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신부님의 전화를 받고 ‘어찌지?’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 그렇지만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만 “예!”라고 대답을 해 버리고 말았다. 하느님의 도움과 본당에 좋은 뜻을 가지고 도와주실 분이 많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책임을 맡고 보니 조금씩 나의 생태적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다. 마침 본당 수녀님들이 틈틈이 손수 황마 수세미를 만들어 신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과 무심하게 낭비되는 자원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잠자고 있던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워주고 계셨다.

처음엔 솔직히 귀찮고 버거웠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용기도 부족했다.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따라 해 보겠다고 결심했다. 우선 교구에서 실시하는 환경 교리 학교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여러 매체를 통해 환경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

“하느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환경 보존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란 생각이 들면서 맨 먼저 본당에 자원 정거장을 설치하였다.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병류, 캔류, 우유 팩, 폐건전지 등을 담은 수거함을 만들어 신자들로 하여금 버려지는 자원을 모으도록 하였다. 본당 주보에 녹색 분과 지면을 확보하여 매주 실천 사항을 올려 신자들이 생활 안

에서 실천할 내용들을 알리고 있다. 또한 첫째 주일을 본당 환경보호의 날로 정해 미사 중 공지 사항을 전달할 때 환경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봄이 왔다. 그동안 수녀님들이 일구어 오셨던 성당 유기농 텃밭을 녹색 분과에서 맡아서 해 보라고 하셨다. 농사 경험이 없던 나로서는 눈앞이 캄캄하였지만, 어느덧 내 손엔 상추, 고추, 토마토, 호박, 가지 등의 모종이 들려져 있었다. 심고, 물 주고, 정성을 들이며 그 예쁜 생명의 마력에 끌려 자주 자주 텃밭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시설관리 분과와 협력하여 수세미 터널을 만들어 천연 수세미를 만들 꿈에 부풀어 있었다.

본당 아나바다 장터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여분의 머그잔들을 모아 활용한다. 작은 행동에 깃든 정신을 신자들 모두가 기쁘게 호응해 주신다. 무더운 8월이 지나는 즈음엔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각 가정에서 손대지 않고 묵히고 있는 소형가전이나 주방용품, 기타 생활용품들을 기증받아 필요한 이들이 값싸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건전한 소비 습관을 키워갈 수 있는 상설 판매장 ‘녹색가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마스크를 쓰는 우리 아이들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 주는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나부터 환경지킴이가 되어서 가정, 지역, 나라, 지구 사랑에 온 힘을 쓰고 있다.

이정희 줄리아 · 간석2동 성당 녹색분과장



· 자원 정거장



· 천연 수세미 터널

그리스도인은 사형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지난 7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위헌 여부를 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2019년 2월 주교회의의 사형제도 폐지소위원회가 헌법소원을 내며 시작된 이번 헌법소원은 1996년, 2010년 사형제 합헌 결정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날은 사형제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서, 사형제의 결론은 아직 대법관들로부터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공개 변론에 앞서 천주교, 불교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 7개 종단 대표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사형 폐지를 염원하는 7대 종단 대표 공동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형제 찬성에 대한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익을 위한 엄중한 형벌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에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느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머리카락까지 낱알이 다 세어두실 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마태 10.30-31)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느님의 것인 인간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 내거나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라는 계명에서 드러난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개인 간의 다툼의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형벌에서도 유효하기에 사형제도의 찬성은 곧 다섯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것과도 같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더 이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응보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사형은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잘못된 판결에 의하여 무고한 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면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집행은 절대 번복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죄인의 죽음을 통해서 피해자의 원통함이 회복되지

도 않는다는 사형제도의 단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죄인의 회개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한다면 죄인이 처단되기를 바라기보다, 그가 진정 회개하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인지에 대해 통렬히 속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도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국제연합(UN)이 전 세계의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사형제도 폐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듯 사형제의 폐지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도 정당방위 최후의 수단으로써 "불의한 공격자로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할 유일하고 가능한 방법이 오로지 사형뿐이라면, 사형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2267항을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단호히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2018년에 개정하였다. 이런 사회 문화의 변화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인식변화에서부터 서서히 진행된 결과물이다. 사형제도의 존치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한국 사회에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형제도는 복음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간다면 법률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라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사진출처 CBCK



· 7/14(목) 7대 종단의 대표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폐지 의견서 제출

제6회 국내자원봉사활동 in 제주

교구 청소년사목국에서는 녹색순교 실천과 청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걸었던 선교 여정 체험을 위해 지난 6월 청년 25명과 함께 2일간 제주도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은 청수곶자왓과 수월봉 영알해안에서 외래종 식물 제거와 해안 정화 활동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고, 녹색순교에 대한 사명감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불러일으킨 환경파괴를 ‘나 한 명부터’라는 생각으로 환경보호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활동으로 우리나라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고, 환경을 소중히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란 걸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연휴 기간을 이용하여 청년과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 예정인 ‘제7회 국내자원봉사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종 안내

이달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故 강성욱 마태오
선종: 2004.08.30.



故 김보성 베드로
선종: 2014.08.02.



故 송주석 안셀모
선종: 2016.08.24.

교구 알림

주일학교 여름신앙학교 사진 공모

본당 여름신앙학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합니다.

- 기한: 8/10(수)까지 (8월 21일자 주보에 게재 예정)
- 참가: hongbo@caincheon.or.kr
- 문의: 032-765-6963

후원 안내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성지 조성 후원 안내

내용	인원	금액	혜택
1. 추모의 벽	1인당	1,000,000	한 달에 한 번 10년간 미사 봉헌
2. 기도의 벽			
3. 후원 1구좌	1인당	500,000	-

☎ 성지개발 위원회 032-765-6916

교구청 알림

◆ 22년 예비신학교 신학과 지원반(고3, 일반) 피정
때·곳: 8/12(금)~13(토)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 지구를 위한 미사와 환경특강

때·곳: 8/11(목) 10:30 답동 사회사목센터 4층
☎ 환경사목부 032-765-7255

◆ 제17차 가톨릭 약혼자 주말

때: 10/21(금) 20:30~23(주일) 16:00
곳: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대상: 예비(신혼)부부, 사제, 수도자
☎ 가정사목부 032-762-8888

교육 | 피정

◆ 예수회센터 9월 개강 프로그램

·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19번에 의한 영신수련)
영신수련 동반사 양성센터의 사제와 수도자들:
매주(수) 10:00~12:00
·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매주(화) 14:00~16:00
· 영여성경 나눔(Zoom): 매주(목) 18:00~19:00, 19:30~20:30
· 영성과 철학상담(Zoom): 매주(화) 19:00~21:00
☎ 02-3276-7733 / <http://center.jesuits.kr>

◆ 지혜의 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교육 일정

열썬(월/수) 쉬운 맥경성: 1년 동안 신구약 성경의 맥을
쉽고 재미있게 살펴보는 무료 교육 과정
때: 7/4부터 (월) 오전-구약 1강의, 오후-구약 2강의
(수) 오전-신약 1강의, 오후-신약 2강의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 010-5454-1871, 010-3248-9705

◆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히랍어)

기간: 10월부터 1년(Zoom 수업: 3개월에 30만원)
때: 매주(수) 19:30~21:30
☎ 프란치스코회 010-4598-6912

◆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일정

· 묵주기도와 미사-매주(월) 13:00~17:00
· 수요일 치유세미나와 미사-매주(수) 14:00~17:00
· 성령미사와 기도회-매주(금) 20:00~23:00
· 동춘동 성령세미나-5/23~10/11 매주(화) 19:00
· 교구 성령대회-9/23 보니파시오 대강당
YouTube 실시간 온라인 방송
☎ 미사지향 접수 032-761-6301

◆ 노틀담 예비신자 교리 비대면 연수

때: 8/23, 27, 30(택 1일) 13:00~17:30
☎ 교리교재 연구소 010-6300-6318

◆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8/12~15, 26~29, 9/23, 10/7~10
곳: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 36만원(효소비 포함)
☎ 글라라 010-9363-7784

◆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곳: 매주(화) 12:30~16:00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회장 010-5514-4077

◆ 제주 면형의 집 피정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8/20~22, 26~28, 9/15~17
성지순례(추자도): 9/3~6, 25~28
☎ 02-773-1463, 064-756-6009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8/27~29, 9/3~6 [3박 4일],
9/15~17, 19~21, 25~27, 10/1~3, 8~10
☎ 02-773-1455, 064-796-4182

◆ 성령기도회 및 치유 대피정

· 화요 성령기도회-매주(화) 18:30~22:00
· 치유 대피정-8/13(토) 12:30~17:00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02-874-6346

미사 | 행사

◆ 공향청사 성당 미사 시간 변경

때: T2 7/24부터 11:30으로 변경
T1 (수) 12:00, (토, 주일) 15:00
7월부터는 일반신자들도 참석 가능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찬양 미사

때·곳: 매주(월) 10:00 도화동 성당
집전: 양창우 요셉 신부 ☎ 032-763-1961

모집 | 일반

◆ 교구청 사제관 주방 직원 모집

제출: 이력서, 교적증명서, 본당사제 추천서
마감: 8/19(금)까지 사무처 제출 ☎ 032-765-6961

◆ 용현동 성당 사무직원(사무원) 모집

제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본당사제 추천서 각 1통
☎ 032-864-8660

◆ 강학 꽃동네 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주 40시간]
남녀요양보호사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 010-3040-7518

◆ 전례음악 가톨릭 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남성4부(T1, T2, B1, B2) / 연습: 매주(화) 20:00
☎ 가톨릭문화원 010-3794-3677

◆ 시각장애인 예비자 및 봉사자 모집

☎ 032-881-8281

◆ 청소년 참여조직 동아리 참여자 모집

접수: 7/8~8/12 / 기간: 9월~11월 중
혜택: 봉사시간 지급, 표창 외
☎ 청소년 재단 032-766-1318

◆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기계가공, CAD/CAM
기간: 8/22~23/31 / 대상: 만 15~40세 남자
혜택: 교육비, 기숙사(선택)비 무료
취업 지원(취업률 95% 이상)
☎ 02-828-3600 / www.donbosco.ac.kr

◆ 22년 가톨릭대학교 학점은행제 수강 모집

· 가톨릭신학-영성신학, 구약성서입문, 신학원론, 라틴어 등
· 심리학전공-발달심리,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심리학개론 등
· 사회복지학전공-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접수모집: 7/25~8/31 / 개강: 9/5(과정별 순차 개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 가톨릭대학교 성심(역곡) 02-2164-6587~8,
성익(서초) 02-2258-7730

◆ 가톨릭 뮤직 캠프 접수

때: 8/26(금)~27(토) [1박 2일]
곳: 파주 참회와 속죄의 성당 민족화해센터
과목: 소프라노, 알토, 남성 성가 발성반
주최: 모니카 교회음악원 / 후원: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
☎ 심준보 베드로 010-5245-2848

◆ 커피바리스타교육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홀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주 1회~12주]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 (사)하랑바리스타협회 010-9040-8306
<http://club.catholic.or.kr/barista>

◆ 백석묘역, 마전묘역 벌초 신청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금마련
곳: 백석묘역, 마전묘역 / 신청: 8/28까지
주최: 교구 빈첸시오회
☎ 010-9121-6229, 010-9000-3373

◆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모임

때·곳: 8/14 14:00부터 가정동 성당 수녀원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 강 피아 수녀 010-3679-7198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8/14(주일) 14:00~17:00
곳: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 1번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순례 | 기타

◆ 국내 성지순례

· 의정부교구-의정부 주교좌 성당, 양주순교성지,
광암 이벽 진묘터, 포천순교성지: 8/10
· 섬티아고(앤드레이 축제), 퍼플교: 9/17~18, 9/28~29,
10/1~2, 10/8~9, 10/15~16
· 인천교구-이승훈 베드로 묘, 답동 주교좌 성당,
제물진두 순교성지: 9/24
☎ 010-9200-3532

◆ 성지순례

제주 [3박 4일] 35만원, 김포공항 출발
전국 167곳 [2박 3일] 29만원, 서울역 출발
매월 출발 ☎ 010-4239-1929

◆ 베트남 다낭 성지순례

때: 11/3(목)~7(월) [5일]
☎ 최금옥 최형베드로 010-8705-0319

◆ 해외 성지순례

스페인 파티마, 프랑스 루르드 [12일] 10/19
산티아고 도보순례 100km [12일] 10/31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10/31
일정 및 요금: www.catholictravel.co.kr
☎ 명동 가톨릭회관 619호 010-5235-3533

◆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 제주운전기사사도회 064-758-6476, 010-4566-6476

성소모임

◆ 한국외방선교(해외 선교)수녀회

수도 생활과 해외 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수시로 ☎ 노아 수녀 010-9353-1773